

목양칼럼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는

새해 특별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기도회가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눈이 펄펄 내렸습니다.
 거리에는 눈보라가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휘몰아쳤습니다.
 그 날 저는 그 눈보라가 한창 심할 때 밖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이고, 누구도 앞서 걷지 않은 눈길을 걸으면서
 문득 언젠가 읽었던 책이 생각났습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 리더들의 역할과 책임을 기록하여
 비즈니스 CEO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 한, “극한의 리더십”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교회 와서 책을 다시 보니 책 제목 앞에 작게 쓰여 있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는 극한의 리더십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유익한 교훈을 알려드립니다.
 “죽음을 수용하라” “나만 잘되려는 이기심을 버려라” “현실에 유연하라”
 “협력하라-자신만 높아지려는 고독한 영웅주의를 버려라”
 “용기-진실에 눈을 감지 말라” “끈기-현재에 안주하려는 비겁함을 버려라” ...

리더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는 삶의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1-3)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피난처, 힘, 큰 도움이시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이 한해를 넉넉히 이겨나갑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용/QPEM대학부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구/청년부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국어부 (646)789-1118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지휘 / 강혜영
반주 / 이선영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최미희
			중국어 찬양대 지휘 / 윤원상 반주 / 윤현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터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I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1월 7일
 제 44-1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550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김수산 장로 3부 / 정길표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사도행전 11:19-30	사회자
찬양 CHORUS	내혼아 주 찬양 그 사랑 내 생명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01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52 / 1,2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후 2018년 1월 7일

주일예배 (2,4부)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김원도 장로 4부 / 송동윤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OFFERING & HYMN	301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사도행전 11:19-30	사회자
찬양 CHORUS	위대하신 여호와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2부 / 김성국 목사 4부 /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하나님의 은혜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주일 저녁 예배

제직 수련회 / 제직 시무 헌신예배

오후 3:30 (1/7/18)	사회: 김성국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양 212	다같이
기도	최성호 집사
성경봉독 에베소서 4:11,12	사회자
찬양	연합찬양대
말씀	정익수 목사
바른 제직	
헌신찬송 352(1,2,간주,4)	제직원
헌금 현금송: 소철화	다같이
광고	다같이
봉헌기도	김성국 목사
찬송 주님께서 세운 교회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수요 기도 예배

오후 8:00 (1/10/18)	사회: 김성국 목사
찬양	교육위원회
성경봉독	사회자
	요한복음 14:25-27
말씀	김성국 목사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새가족 환영회

6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퀸장 바이블 칼리지(QBC)

오리엔테이션 오후 2:15-2:45

교회소식

1월 전진의 달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1/5-7(금-주) 제직 수련회 및 제직 시무 헌신 예배 1/7(주) 퀸장 바이블 칼리지(QBC) 개강
1/12(금) 구역 예배 1/14(주) 선교회 월례회 1/16~(화~) 대심방 시작

알림

-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올해의 표어를 따라서 다음 사항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1)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2) 성수주일에 힘씁시다.
 - 3) 모든 공예배와 가정예배를 적극적으로 힘씁시다.
 - 4) 헌금 생활(십일조, 감사, 선교, 건축, 일천부제)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 5) 말씀의 생활화를 위해 성경 읽기와 성경문답서에 힘씁시다.
 - 6) 각 부서에서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7) 전도의 생활화를 힘씁시다.
- 오늘 저녁 예배는 1월 연합 저녁 예배로 '퀸장 바이블 칼리지' 오리엔테이션 (오후 2:15-2:45) 후, 오후 3:30에 본당에서 제직 수련회 및 제직 시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제직과 성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퀸장 바이블 칼리지(QBC) 안내 1) 시간: 매 주일 오후 2:15-3:15 2) 학비: 1년/ \$10.00 (1년 교재비 포함)
3) 장소: 청장년부-유아부실, 40대 선교회-유년부실, 50대 선교회-고등부실, 60대 선교회-찬양대실, 70대 이상 선교회-친교실. *유치부실에서 어린 아이들을 봐드립니다
- 대심방을 1/16(화)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선교부 겨울 수련회 안내 1) 일시: 1/14(주)-16(화) 2) 장소: 리벤젤 수양관 3) 강사: 조영천목사
- 2018년 성경읽기표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1/13(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청년대학부 (다음주: 청년선교부)
- 가족기념 장학기금 허숙영 권사, 한기덕 권사

새가족

김성준 (청장년 2F13) 박춘란 (청장년 2F13, 이준석 - 유치) 황현정 (청년대학 2Y1)
Norman Jang(청년선교 1Y2)

교우소식

출 산 김도현 목사(김미영 사모 3BS5) 가정에서 1/2(화) 득녀(Selah)하였습니다.
출 산 송인호 교우(송유하 교우 2F2) 가정에서 1/4(목) 득녀(다은)하였습니다.
식사제공 허숙영 권사(3FH)께서 90회 생신을 기념해 오늘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도네이션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무명으로 쌀과 라면을 도네이션한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기도자

주 / 김청자 박영님 이수금 방숙란 홍승룡 서길웅 김선림
월 / 김청자 박영님 손순단 김미나 홍승룡 서길웅 김선림
화 / 김석영 유정에 정금숙 허경화 김미정
수 / 권양로 김석영 주삼열 손귀자 주정인 한지혜
목 / 주정에 진미애 박정봉 정재숙 홍미숙 박정봉 김은경 박기자
금 / 단미애 박정봉 정재숙 홍미숙 김은경 박기자
토 / 이옥수 박석미 조선희 정해자 김수진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276	러시아어 예배	19	영어부	33	중등부	56
2부 예배	325	청년 선교부	84	유아부	27	고등부	53
3부 예배	331	송구영신 예배	702	유치부	30	청년 대학부	44
4부 예배	171	새벽 예배	1200	중국어 교육부	19	교회 학교 예배	428
영어 예배	172	수요 기도 예배	205	유년부	86	주일 낮 장년 예배	1650
중국어 예배	272	새가족 환영회	12	초등부	80	주일 낮 총계	2078

1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김수산 장로

헌신기도	차상남장로	최원일장로	함용식 장로	남형욱 장로
책임권사	장현미 권사	이정심 권사	주광자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형섭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루디아, 여호수아 주일식사: 마리아(다음주: 브리스가)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교회)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23)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 I. 1.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 II. 2.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3.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4.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5.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6.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7.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 III. 8.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9.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10. 죄 사함과
11. 육신의 부활과
12.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304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3장 1-12절

혹시 이름을 바꾸신 적 있으신가요? 나면서부터 정해졌고 불려졌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했던 사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9).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안 바꿨던 이름을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 왜 바꿨을까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큰 자’라는 뜻의 유대인 이름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로마식 이름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역사에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사명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자를 주님은 들어 쓰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305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3장 13-41절

어떤 한 일을 3달 동안 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3년 아니 30년 동안 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어떤 한 일을 하기 위해서 300년이 걸렸다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야기, 광야에서 방황하던 약 1500년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 주는 핵심 두 가지를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8),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39). 바로 죄 사함과 의롭게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으시길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310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3장 42-52절

복음을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초대 교회 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자들

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48),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52).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합니다. 왜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쓰여있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 자는 감사와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데 택함 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 받고 있기에 기쁨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314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4장 1-7절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하나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사도들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지만 이고니온의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르는 자와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현명하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315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4장 8-18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아름답고 좋은 단어까지도 본인들에게는 합당치 않고 어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주제를 알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사 써주심에 감사할 뿐이고, 하루하루 죄와 싸우며 나가는 종 일뿐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제우스, 헤르메스라 하며 자신들에게 제사 드리려 하자 한사코 말리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보이고 설명하고 외쳤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주제’를 알며 크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320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4장 19-28절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22).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서 죽을 뻔하고, 겨우 생명을 건지고 초대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초대교인들도 믿음의 흔들렸습니다.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두려움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며,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너무나 완벽한 자리이며, 환난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는 고백임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 순결한 고백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합심 기도 / 주기도문